

- 주요 뉴스: 미국 3월 소비자물가, 41년 만에 최고치.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
 -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,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는 인플레이션 완화. 6월 양적긴축 가능
 - 세계무역기구, 금년 세계무역 규모 전망치를 하향.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반영
 - 스리랑카,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채무불이행 선언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0.3%], 달러화 강세[+0.4%], 금리 하락[-6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추가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이 원인
 유로 Stoxx600지수는 독일 은행주 약세 등으로 0.4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의 매파적 발언 등이 영향
 유로화가치는 0.5% 하락, 엔화는 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이 배정
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3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29.2원, -7.0원) 0.6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4/12일	4/11일	전일대비			4/12일	4/1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97.5	4,412.5	-0.34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2%	2.78%	-6bp
	유럽	456.65	458.26	-0.35%		독일	0.79%	0.82%	-3bp
	중국	3,213.3	3,167.1	1.46%	CDS 5y	한국	32bp	32bp	-0bp
	일본	26,335	26,822	-1.81%		중국	69bp	68bp	1bp
	한국	2,666.8	2,693.1	-0.98%	위험 지표	EMBI+	-	379	-
환율	달러지수	100.32	99.93	0.39%		VIX	24.26	24.37	-0.45%
	유로화	1.0828	1.0884	-0.51%		WTI유	100.60	94.29	6.69%
	엔화	125.38	125.37	-0.01%	원자재	구리	471.0	463.4	1.63%
	위안화	6.3657	6.3700	0.07%		금	1,966.8	1,953.5	0.68%
	원화	1,236.2	1,233.1	-0.2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월 소비자물가(CPI), 41년 만에 최고치.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

- 노동부에 따르면, 3월 CPI는 전년동월비 8.5% 올라 '81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. 전월비 기준으로는 1.2% 상승하여 '05년 이후 최고치. 이번 결과는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. 식품가격도 3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에 일조
- 반면 근원 CPI는 전월비 0.3% 올랐으나 6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. 이는 중고차 가격 등 주요 공산품 가격의 하락 등에 기인. 그러나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근원 CPI 상승률이 6.5%로 '82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
- 일부에서는 근원 CPI의 전월비 상승률 둔화에 근거하여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을 제시. 이를 반영하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렸고(-6bp), 선물시장에서의 연말 정책금리 전망치도 3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하락(2.59%→2.42%)
-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가격과 임금 등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. 이를 고려한다면 5월 FOMC에서 빅스텝(0.5%p 금리인상)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
- 블룸버그의 Anna Wong은 근원 CPI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서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. 다만 공산품 가격의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면, 연준의 강력한 금리인상 필요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, 중앙은행의 핵심 임무는 인플레이션 완화. 6월 양적긴축 가능

- 연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일련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. 인플레이션율을 2%까지 낮추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. 한편 금년 내에 수요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■ 세계무역기구, 금년 세계무역 규모 전망치를 하향.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반영

- 금년 세계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3.0%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, 이는 최근 전망치(4.7%)에 비해 낮은 수준.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 지속 등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.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(4.1%→2.8%)

■ ECB 조사, 역내 은행은 2/4분기 법인대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

- 은행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향후 성장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도 점차 하향 조정. 또한 연준과 ECB의 통화긴축 움직임도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

■ 독일 4월 ZEW 경기기대지수, 예상치 상회. 인플레이션 우려는 소폭 완화

- 해당 지수는 -41로 전월(-39.3) 대비 하락했으나 예상치(-48)보다는 높은 수준. ZEW의 Achim Wambach는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가 전월 대비 둔화된 것은 다소 희망적이라고 설명

■ 중국 정부, 증시안정 방안을 발표. 투자기관의 주식 매입 확대 등을 촉구

-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사회보장기금, 연기금, 보험사, 자산운용사 등에게 우량기업 투자 확대를 요청.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시스템도 개선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매각 및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

■ OPEC, 금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.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

- 금년 세계 원유수요는 일일 367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의 전망치 대비 일일 48만배럴 하향.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을 반영

■ 스리랑카,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채무불이행 선언

- 중앙은행 총재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부채상환 대신 필수품을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. 라자팍스 대통령은 지난 달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. 팬데믹 장기화 및 중국 일대일로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 부진 등이 이번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4/12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3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): 7.6%, 2월(5.5%), 예상치(7.6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13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강연, 뉴질랜드 및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
- 미국 3월 생산자물가, 영국 3월 소비자물가, 중국 2월 수출입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통화긴축 기초,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에도 지속될 전망 - 블룸버그

(Fed Won't Be Swayed Even If Inflation Has Peaked)

-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3월 중고차 가격이 전월비 3.8% 감소한 점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음을 의미. 그러나 기업 비용에서 에너지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둔화 확신은 시기상조
- 자동차 산업 내 공급 부족 해소는 '24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고차 가격은 향후 재상승 가능. 또한 1970년대의 사례는 공급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. 이에 연준은 통화긴축을 지속할 가능성

■ 우크라이나 위기, EU의 탈탄소화 전략을 가속화 - The New York Times

(What It Will Mean as Europe Frees Itself From Russian Energy)

- 러시아 제재에 따른 천연가스 대체공급의 어려움은 유럽이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.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마련에 박차
- 대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는 탄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유도.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 편익을 얻을 전망

■ 미국 노동수요의 완화, 통화당국의 물가조절 등에는 긍정적 신호 - 블룸버그

(A Cooler Jobs Market Is Just What This Economy Needs)

■ 엔화 약세, 헤지비용 증가 초래하여 미국 국채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Weak yen hits demand for Treasuries as traders weigh up hedging costs)

■ 미국 은행권, 1/4분기 실적은 팬데믹 특수 감소 등으로 전년비 부진 예상 - WSJ

(U.S. Banks' Pandemic Hot Streak Is Coming to an End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